

尹 체포 '임박'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경호처 반발도 여전히 물리적 충돌 우려와 함께 국민 분열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에 기대감=공수처는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밝혀왔다고 14일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었다.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구역에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 3차 작전회의, 구체적 계획 논의한 듯=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3차 작전 회의의 열었다.

55경비단 "공조본 출입허가" 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 형사 1000여명 동원될 듯 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이기에 때문에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아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동시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 "매뉴얼대로 대응한다"=하지만 이날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탄핵 첫 변론 4분만에 끝... 기피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리가 4분만에 종료됐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접수한 정계선 헌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이 진행됐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법률대리인은 법정에서 나왔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24년 11월 8일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재판 개시를 알리고 양측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문 대행은 "오늘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고지한 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된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측이 이의를 제기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 일괄 지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 "이는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이기흥 3선 저지 '대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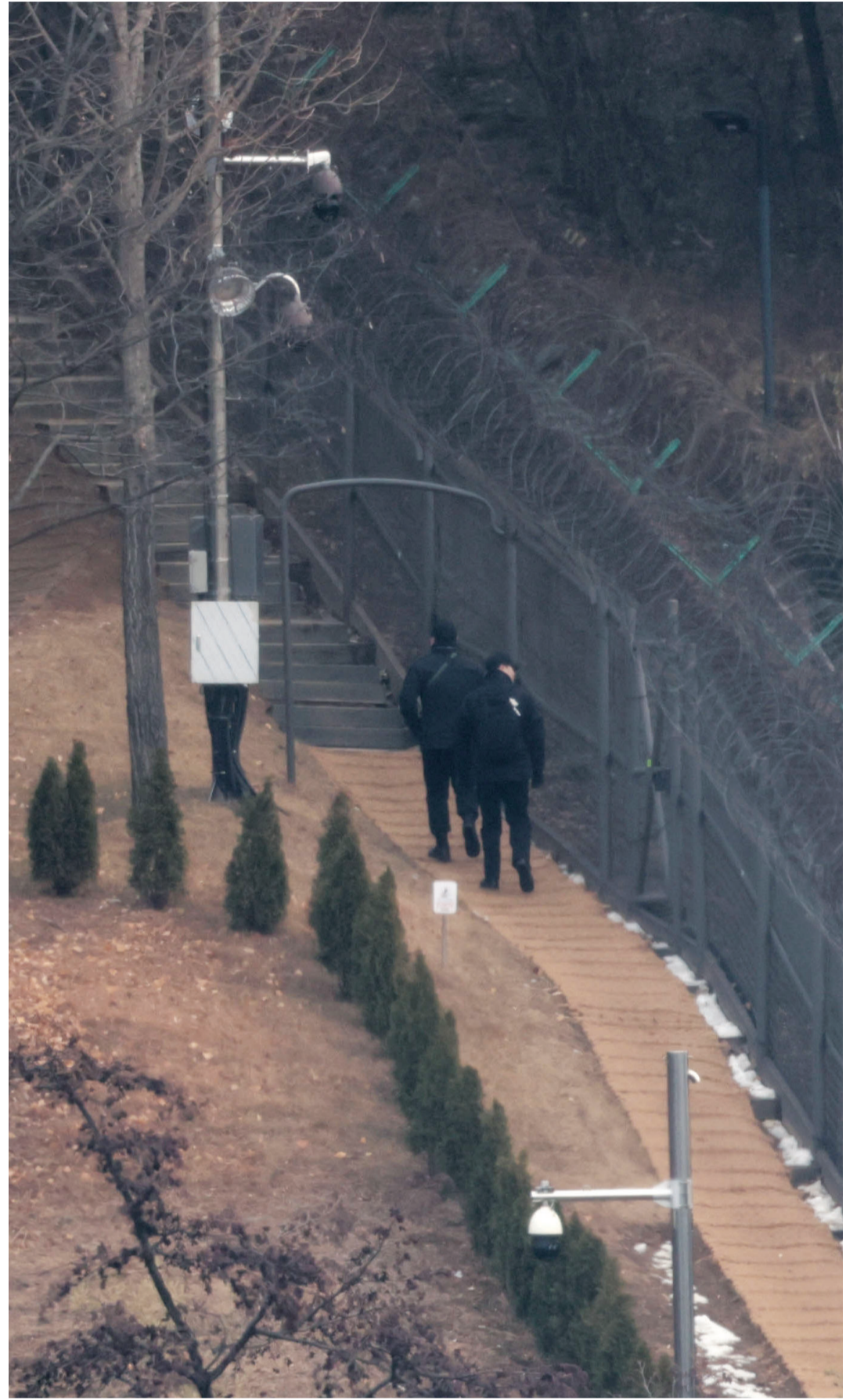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당선됐다. 3선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제쳐 '이변'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19면〉

유승민 후보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획득해, 379표 득표에 그친 이기흥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체육회장으로 당선돼 2021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3선에 도전했지만, 유 후보에게 석패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구묘역, 지하공간 활용 역사관 신설 ▶6면
- 광주FC, 아챔·K리그 두 토끼 사냥 나선다 ▶18면
- 유럽의 소도시 - 독일 하이델베르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